



# 2018 WMUN 의장단 보고서

수석의장 - 전민서

부의장 - 이노진

## 목차

- I. 인사말
- II. 위원회 설명
- III. 의제 설명
  - 1.도입
  - 2.역사적 배경
  - 3.현재 상황과 전망
  - 4.쟁점
- IV. 참고 문헌

## i.인사말

수석의장 전민서

안녕하세요. WMUN 국제난민기구의 수석의장을 맡게 된 전민서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모의유엔을 알게 되어 영어위원회를 참가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웠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사단 여러분들도 모의유엔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노진 의장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사단 여러분들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이노진

안녕하세요. WMUN 국제난민기구의 부의장을 맡게 된 이노진입니다. 저희가 소속된 의제는 국제난민기구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경제나 복지와 달리, '난민' 문제와 관련된 의제는 다소 낯선 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난민 대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양상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본다면, 연민의 관점 대 이성적인 관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난민 문제를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사로서 성공적인 결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ii. 위원회 설명

본 위원회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945년 국제연합이 설립되자 난민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946년 제1차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결의문이 채택된 후 1947년 연합국구제부흥기관은 해체되고 1948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난민기구가 창설되어 연합국구제부흥기관의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IRO는 1948년 8월 16개국이 참가하여 정식으로 발족한 이래 1951년 6월 폐지될 때까지 103만 명의 난민 정착사업과 7만 명의 본국 귀환을 주선하였는데, 폐지된 후에는 1951년 창립된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식량계획·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국제연합아동기금 등에서도 일부 업무를 넘겨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 목적

본 위원회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비정치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며, 그들의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적응, 제3국가 재정착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팔레스타인 난민 보호 정책, UN 내 협력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난민들이 마주하는 각종 문제의 심각성을 각국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활동은 긴급구호와 난민들의 정착을 중심으로 합니다. 후원을 받거나 국가 간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원조물품과 전문가를 파견하며, 난민에 대한 장기적 보호와 재건을 꾀합니다. 또한,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제3국가 재정착을 돕는 등 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iii. 의제 설명

#### 1.도입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시리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평화시위를 위해 거리에 뛰쳐나왔고, 시리아 정부의 정책적 발전과 반정부에 대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내전으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 반군,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점령하는 3 개의 영토로 분열되어 있다. 내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 용어 정리

난민: 국제 법에 의거하면 인종이나 종교, 민족, 정치 등의 이유들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보호를 원치않는 사람들을 모두 난민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전쟁 혹은 재난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뜻하며 대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난민들이 있다. 난민에 관련된 조약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더블린 조약과 난민 쿼터제가 있다. 지속되는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난민 범죄들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해서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망명 : 국민국가에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하며 그 관할하에 있으므로, 본국에서의 인종적·종교적·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망명은 단순히 전화를 피하기 위한 난민과 구별됩니다. 특히 전쟁·혁명·동란이 발생할 때 대량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예로 16 세기 프랑스에서 신교도의 박해로 국외로 도피한 위그노, 17 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 프랑스혁명의 왕후귀족들의 망명이 있으며, 현대에서는 1917 년 러시아혁명 후 소비에트체제에 반대한 백계 러시아인의 망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김.

정권 : 일반적으로 의회와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정부를 구성하여 정치를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권력을 가리키는데 한 나라의 통치기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의제의 발단또한 권력을 남용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3. 역사적 배경

### 3-1. 발단

2011 년에 시작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시리아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2 월 5 일 하사카의 정부 개혁 요구 시위에서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데모는 시리아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3 월부터 '존엄의 금요일', '영광의 금요일' 등의 이름 하에 온라인으로 시위 날짜가 선언되었으며, 금요일 예배 후 정부 부패, 자유 확대, 시리아 비상사태법 철폐 등을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군은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3 월 26 일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정치범 200 명을 석방하면서 유화책을 제시하자 그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비상사태법 철폐 등 시리아 국민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라는 말로 해결책을 회피하자 시민들은 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백명의 죄수를 석방하고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발표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정부는 군사를 동원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 정부의 폭력 행사를 비난했으며,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시리아 당국의 자산 동결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각 국가들은 유엔의 시리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지지했으나, 이 조치는 다른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리아는 반정부 시위를 이슬람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반정부 시위자로 나뉘어 대립을 계속했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 3-2. 시리아 내전과 난민 이주의 시작

#### 3-2-1. 2011 년

2011 년 5 월 3 일, 300 여명의 시리아인들이 터키 국경을 넘었습니다. 터키 대통령, 압둘 귤은 시리아 난민들이 갑작스레 밀어닥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작은 캠프를 마련해두어 4 월 29 일 도망친 263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5 월 중순에 이르러, 700 명에 이르는 텔 칼락 지역의 시리아인들이 레바논 북서쪽 지역의 국경을 넘었으며 레바논은 10 일 동안 1350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6 월 중순 쯤, 인권협회는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수는 8500 명 정도라고 발표했으며, 주변 국가로 국경을 건넌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20,000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터키 국경에 모이면서, 6 월 23 일까지 하루에 수백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었고 총 11,700 명에 이르렀습니다.

11 월에,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7,600 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12 월에는,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의 난민의 숫자는 5,000 명에 이르렀다. 12 월 중순쯤,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1,500 명이라고 했지만, 1,000 여명이 비공식적으로 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 3-2-2. 2012 년

2012 년 1 월 말쯤, 레바논에 6,375 명의 시리아 난민이 집계되었습니다. 2012 년 2 월 초, 요르단은 시리아의 과격 시위가 과격해짐에 따라 시리아 난민 캠프를 개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에 3,000 여명의 시리아 난민이 집계되었고, 터키에는 9,700 여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 년 3 월 4 일, 시리아 군대의 진압이 심해지면서 레바논에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리아 난민의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략 2,000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터키 또한 3 월달에 이르러 매일 수백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피아난의 평화 계획에 의해 4 월 10 일 휴전이 예상되어있었지만 앞선 시리아 군의 공격 때문에 2012 년 4 월 터키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4 월 10 일, UN 은 주변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숫자가 몇주동안 40 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55,000 명의 등록된 난민중 절반은 18 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다.

5 월에는, 3,171 명의 시리아인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성명에 따라 난민으로 등록되었으며, 매일 10-15 가족들과 50-65 명의 개인들이 계속해서 난민으로 등록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2 년 5 월, 보고타 지역의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콜롬비아 NGO, 목회자들의 도움을 얻어 콜롬비아에서 정치적 망명의 자격을 얻었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8 월 중순경 까지, 2012 년 난민의 전체 숫자가 200,000 명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며 180,000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 년 12 월에는 전체 시리아 난민의 수는 408,000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은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이라크 크루디시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수는 135,519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라크에는 8,852 명이 이라크 크루디시 지역에는 추가로 54,000 명의 난민이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레바논에서는 109,081 명의 난민이 머무르고 있었으며, 41,712 명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100,368 명의 난민이 머무르고, 41,524 명의 난민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2 년 12 월 30 일, 이집트에서는 12,915 명의 난민이 등록되어 있었고, 최소 150,000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집트 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3-2-3. 2013 년

시리아에 있던 기독교도인들이 미국 기독교회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를 빠져나와 미국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8 월에는, 불가리아에도 엄청난 수의 시리아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늘어나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EU 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국경은 터키와 접경지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0 명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불가리아 시리아 난민센터와 정부는 불법적으로 불가리아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터키와 힘을 합쳐 새로운 지역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8 월에는 UN 은 수천명의 시리아 난민 그룹이 시리아를 떠나 이라크 크루디시 지역으로 피난했다고 밝혔으며, 9 월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시리아 난민의 수는 급증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던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1 차로 터키로 피신한다음, 2 차로는 이집트를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9 월, 스웨덴 이주 당국은 시리아의 분쟁이 심각해 짐에 따라 스웨덴에 망명신청을한 시리아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이 EU 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스웨덴에 머무르던 8,000 명의 시리아 인들은 스웨덴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스웨덴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리도 부여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시리아-아랍 문화 부분 부회장인 마렉 레스커는 이러한 결정을 반기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 월,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주도하에)의 국가들 또한 시리아 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첫번째 국가였으며 시리아 주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에 있던 브라질 대사관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

### 3-2-4. 2014 년

2014 년 8 월 말, UN 은 650 만명이 시리아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300 만명이 레바논 요르단, 터키등으로 거주를 옮겼으며 또다른 350 만명은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십만명의 다른 난민들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위기는 현 시대의 가장 큰 긴급한 인류적 문제이다. 그렇지만 아직 세계는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다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숫자가 세계 2 차대전시의 난민숫자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으며, 난민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난민캠프에서까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명문에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보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알살 지역의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시리아 군의 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100 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2014 년 유엔난민기구에 등록 되었으며 대부분의 난민들은 ISIS 로 인한 시리아 내부 불안정성 때문에 터키로 떠나야 했습니다. 레바논은 경제적 난민들을 받아주었고, 요르단은 2013 년에 비해 훨씬 적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2014 년 9 월 우루과이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 3-2-5. 2015 년

2015 년 7 월 9 일, 유엔난민기구에서는 400 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밀려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은 터키와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5 년 6 월까지,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UN 회원국들로 국경을 넘어감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서는 EU 로 건너온 16 만명의 망명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키는 법안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망명에 대한 법안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 년 9 월 21 일, UN 국가들은 12 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난민들을 받아들일것을 통과시켰습니다. 2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와 같은 가난한 국가들은 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경제적인 문제에 난색을 표하였으며,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은 윤리적 다양성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4. 현재 상황과 전망

### 4-1. 요약

현재 파악되고 있는 총 시리아 난민의 수는 4 백만 명이고 시리아와 가까운 국가인 터키에는 190 만명, 레바논에는 120 만명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국가에만 이주하는 것이 아닌 북아프리카나 이집트까지 이주를 시도하는 등 이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시리아 난민의 수에 대응하여 세계의 국가들은 현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의 경우, 새로운 장소로 난민들을 이주시키는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8 개국 중 23 개국의 찬성 하에 UN 국가는 12 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난민을 받아들일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시리아 난민의 망명 거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일과 체코 국가는 유럽 국가에 망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넌 난민들은 본국으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내용의 더블린 조약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개선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 난민이 처한 상황은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경제상황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해협의 국가는 현재 난민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환경도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까운 국가 시리아로부터의 난민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부의 상황도 시리아 난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10 만명 이상의 시리아 출신 청소년이 시리아 난민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시리아 사회의 고령화 및 생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주하지 못하고 일부 구성원만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흩어진 가정에 의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용직에만 의존하는 시리아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4-2. 국가별 상황

### 4-2-1. 독일

독일은 유럽 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난민이 이전과 달리 대규모로 발생해 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 등 특정 국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회원국 간 할당제 합의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국으로 유입될 난민 수치를 30 만 명으로 연초에 전망했다가 이후 45 만 명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에는 80 만 명으로까지 높였습니다. 매우 실천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단기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독일이 난민 문제에 선도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난민에 관대한 이유는 독일 인구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독일 실업률은 6.4%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제는 난민 유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2 차 세계대전중 국민사회당(Nazi)이 벌인 타인종 학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성공적 통합 사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며 전체 인구 중 이민자 출신 비율이 13.5%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동유럽·남유럽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난민 할당제를 주장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 4-2-2. 프랑스

프랑스는 난민 문제에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 할당은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치와 원칙 위에 세워진 EU 에 더는 속하지 않는 게

된다"라고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도 전쟁 지역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파와 극우파 등을 중심으로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는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복지 제도가 난민에게 프랑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면서 "난민 무료 의료서비스와 주택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쟁 난민을 환영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쟁쟁조약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라민 르펜 대표 역시 "프랑스에 실업자가 700 만 명이고 1 천만 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프랑스 정치 지도자 등이 경제 사정으로 건너온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 수용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 난민들이 정착지로 독일, 스웨덴, 영국을 선호하고 프랑스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관료제적 형식주의가 강한 데다 실업률이 10%가 넘는 등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망명 신청을 하면 9 개월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 정착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난민 수용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망명 신청자는 6 만 명이지만,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잠자리는 3 만 자리뿐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하는 난민들은 친구나 가족과 침대를 나누거나 노숙을 해야 합니다.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르비브르의 사브리 알-라사스는 "난민들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데, 프랑스는 난민들을 환영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의 난민신청 서류는 프랑스어로만 돼 있는데다, 난민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소는 난민신청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4-2-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그동안 난민 구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EU 에게도 관망만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레 노스투룸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지중해 순찰·구조 작전)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탈리아에 큰 부담이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데도 재정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6 월 "이탈리아가 정부와 은행을 구하고 여기에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어머니와 아들까지 구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태"라며 "유럽은 난민 문제를 이탈리아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 난민' 정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 정부는 난민 수용 시설을 마련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극우파 정당 북부리그와 중도우파 포르차 이탈리아(FI)당도 정부의 난민 수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 월을 기점으로 난민들이 이탈리아 대신 그리스로 건너간 다음 발칸반도를 통해 독일이나 북부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에 급속도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루트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대신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이 늘어난 것도,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는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맞았으나, 유럽에서

4 번째로 난민 망명 신청이 많은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EU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4-2-4. 동유럽

동유럽은 구 소련 영향하에 있던 지역이 대부분이라 유럽 내에서도 경제가 낙후한 국가가 많습니다. 폴란드, 체코 등은 뒤늦게나마 산업화를 추진해 경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서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착지인 탓에 난민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는 헝가리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기독교가 기반인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국경의 장벽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로 늘렸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입국한 이민자가 21 만 명이 넘어 추가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5 일부터 세르비아 국경을 폐쇄했고, 시위를 벌인 난민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가장 빠른 길이 막힌 난민들은 크로아티아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세르비아는 버스를 동원해 난민들을 크로아티아 국경으로 실어줬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헝가리의 국경 폐쇄를 비난하며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1 만여 명이 몰려들자 두 손을 들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18 일부터 버스를 동원해 난민을 헝가리로 돌려보냈으나, 헝가리는 크로아티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그대로 버스에 실어 북부 오스트리아 국경에 내려줘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도록 떠넘겼습니다. 이에 슬로베니아 경찰은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걸어 넘어온 난민들을 불법 입국자로 체포해 버스에 실어 다시 크로아티아로 보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EU 규정에 따라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며 입국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시리아 난민에 우선권을 주고 제비뽑기로 입국자를 선별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떠넘기고 국경을 닫으면서 서로 난민정책을 비방하는 설전도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자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은 "크로아티아가 난민들을 단 하루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맞받아쳤습니다. 헝가리가 루마니아와도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양국 간 충돌도 심화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 12 일 헝가리를 나치에 비유하며 "난민을 열차에 넣어 보내버리는 건 유럽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하자 시야르토 장관은 "21 세기 유럽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오스트리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또한 동유럽 지도부는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는 서유럽 국가 및 EU 지도부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은 난민위기 해법과 EU 난민쿼터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외무장관은 "복권을 추첨해서 당첨자는 독일로 가고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슬로바키아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으로 가야 하는가"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 4-2-5. 영국

한편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한 발 떨어져 난민 위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자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순이민자수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총선에 승리하자 공약을 실천하는 세부계획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에 빗장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 허가를 받은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 수도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 시신 사진이 보도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난민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헝가리 등에 와있는 난민에게 문을 여는 대신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의 난민캠프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직접 이주시킨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난민이 '발칸 루트'를 건너오는 와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고국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이 고수하는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은 난민 수용과는 별개로, 난민을 쫓아내는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 평화협정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4-2-6. 미국

미국은 2016년 최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 케리 국무 장관은 "내년(2016 회계연도)에 특히 최소 1만 명인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난민 수용 규모를) 8만 5천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히며, 그 다음 회계연도는 1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미국도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정부의 난민 수용이 테러 위험을 유발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스리 상원의원과 밥 굿라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슬람 국가(IS)와 다른 테러그룹들이 난민 위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난민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이라크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와 켄터키 주에 살고 있던 두 주민이 알카에다 대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난민 심사 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내 흑백갈등 등 인종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을 유입하는 게 인종문제를 확산할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그나마 문화적으로 통합된 흑인과 히스패닉, 동양인과 달리, 난민은 이슬람 문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 사회에 유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4-2-7. 중동·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시리아 등지에서 불거진 난민 사태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 국가들 대부분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와 반군 단체의 부흥, 종파 간 유혈 충돌 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데다 난민을 도울 여력도 안 돼 난민 사태에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5년째에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급증에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IS는 물론 시리아 반군 알누스라 전선 등과 연일 전투를 벌이면서 난민 사태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분파가 장악한 시리아 정부는 자국 내 난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주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내전 기간 국외로 피난을 떠난 시리아 난민은 401만 3천명, 국내에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도 7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원 부국인 걸프국들은 시리아 난민과 같은 종파이면서도 난민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지역 부국들은 기부금만 낼뿐 시리아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이들 정부는 정작 인종·종교적으로 같아도 인도주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난민 사태에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사우디 정부 소유의 알라비야 방송은 지난 9일 사우디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시리아인 50만 명을 국내에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UAE 정부 관계자 역시 외신과 현지 언론을 통해 "2011년 이후 UAE에 입국한 시리아인 10만여 명의 거주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며 "현재 UAE에 시리아인 24만 2천 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해상 탈출구로서 이주민들이 대거 밀입국했지만, 동부와 서부에 각각 들어선 2개 정부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정국 혼란 속에 난민 사태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이집트와 튀니지 등 일부 국가들도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지속한 정치적 혼란기에 경제까지 악화하면서 난민 사태에 해결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5.의제의 쟁점

### 5-1. 분쟁의 쟁점

1. 시리아의 정치 개혁을 통한 민주화 (알 아사드 장기집권 vs 정권 퇴진)
2. 시리아 내부의 종파 갈등 (알 아사드집안 등 소수 시아파 vs 다수 수니파)
3. 중동의 종파 과 영향력권 경쟁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 영향력 확대 기도 vs 이란 등 시아파 국가 정권 사수)
4. 냉전시대에 형성된 시리아-러시아 동맹관계와 서방의 반대

## 5-2. 난민 문제의 쟁점

시리아 난민 주제의 가장 큰 쟁점 중 첫번째는 수용된 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주 성공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난민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이 기아 혹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단지 난민들을 수용할 지리적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난민들이 제 2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금전적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리아 난민 주제의 두번째 쟁점은 이주 과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의 안전과 인권입니다. 시리아 난민의 이주과정은 대부분 공적이기보다 브로커나 밀매업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주 난민의 신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 과정에서 죽거나 잠적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못하고 해결방안 또한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주제의 세번째 쟁점은 '더블린 조약'의 정당성입니다. 유럽연합 소속 28 개국과 비유럽연합 4 개국이 가입한 난민의 망명 처리에 관한 이 조약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유럽 국가에서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더블린 조약은 난민 발생국의 인접 국가에 난민에 대한 책임을 편중하며, 경제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유럽 외곽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의로 난민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주제의 네번째 쟁점은 시리아 난민이 이주한 국가의 사회안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을 이슬람계 테러리스트라고 봅니다. 게다가 유럽 내 대규모 테러 발생으로 시리아 난민의 유입과 국제테러와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난민의 이주를 둘러싼 난민보호, 그리고 난민 통제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주제의 마지막 쟁점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시리아 난민은 단지 그 국가의 인구 수만이 아닌, 인구 수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경제, 사회, 복지 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 역시 이러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난민을 수용할 경우, 수용된 시리아 난민이 중립이 되어 시리아 지역 정부와 수용한 국가 사이의 관계가 발전되기도 혹은 수용된 난민이 무역경제 발달 및 교류관계 형성의 걸림돌이 되어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 iv. 참고문헌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6%AC%EC%95%84\\_%EB%82%B4%EC%A0%84](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6%AC%EC%95%84_%EB%82%B4%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6%AC%EC%95%84\\_%EB%82%B4%EC%A0%84%EC%9D%98\\_%EB%82%9C%EB%AF%BC](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6%AC%EC%95%84_%EB%82%B4%EC%A0%84%EC%9D%98_%EB%82%9C%EB%AF%B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148&cid=40942&categoryId=31656>

UNHCR 활동-UNHCR 홈페이지

UNHCR 이란?-UNHCR 홈페이지

역사와 임무-UNHCR 홈페이지

Syrian Refugee Crisis: Facts, FAQs, and how to help- [worldvision.org](http://worldvision.org)

Quick Fact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Syrian Crisis- [mercycorps](http://mercycorps.org)

지구촌 난민 6 천 만명 시대, 시리아 난민 들여다보기- DBpia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DBpia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DBpia